

# 제천간디학교 비폭력 서약서

※우리는 간디인이다, ※간디인은 폭력을 쓰지 않는다, ※간디인은 폭력을 당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폭력으로 보는 것은, 성적인 것과 언어에 의한 것과 신체에 의한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동급생을 향한 것과 하급생을 향한 것, 이성을 향한 것, 교사와 학생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 모두를 말한다.

폭력의 결과는 그것을 당한 사람에게나 그것을 휘두른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난다. 폭력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파괴한다. 파괴된 내 마음은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고, 함께 사는 삶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이 우주를 파괴한다. 폭력은 간디학교 철학과 절대 양립할 수 없으며, 인간 본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우선으로 우리 곁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진실을 걸고 약속을 하고자 한다.

**첫째,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쓰지 않을 것이다.**

개인이든 집단을 이루어서든 나보다 약한 상대방에게 위협이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 특히, 집단으로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를 가장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둘째, 어떠한 폭력에도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간디의 정신, 불복종의 정신을 가슴 한가운데 칼처럼 세우고 나에게 부당하게 가해지는 폭력에 대해 기꺼이 맞설 것이다. 내가 폭력에 저항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임은 물론, 폭력을 쓰는 사람도 구제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할 것이다.

**셋째, 폭력의 피해를 입으면 그 즉시 공동체 식구들에게 알릴 것이다.**

나 하나로는 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폭력의 문제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가장 민감하다. 폭력의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즉각 알려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이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비겁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가장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일임을 명심할 것이다.

**넷째, 폭력을 목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동체 식구들에게 알릴 것이다.**

본의든 아니든 폭력이 가해지는 장소에 제 3자로 있게 되거나, 폭력이 행사된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을 경우에 절대로 감추거나 숨기지 않겠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잘못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는 것이 정의임을 명심할 것이다.

위의 내용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내 이름을 이 서약서에 뚜렷하게 적어 간디학교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200 년 월 일 요일

하고 싶은 말	성명	(서명)